



FO



가끔 생각한다. 나는 운이 좋은 편일까? 대운이 따르는 사람까진 아니어도 최소한 운이 나쁜 편은 아니라고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정신 건강에도 좋고 여러모로 사는데 이로운 테니깐. “운”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운은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굳이 사주팔자를 믿지 않더라도 인간이 그 운명을 거스르거나 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자주 하게 된다. 나처럼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신의 뜻이나 계획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 라고 말한다. 부모, 외모, 능력 등 그저 타고나길 잘 타고난 사람, 자신의 능력이나 가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나 위치에 오르는 사람,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렸다가도 뜻밖에 귀인을 만나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사람, 노력보다 더 큰 횡재를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가끔 부럽다 못해 배가 아플 때도 있었다. 운칠기삼은 세상에 모든 일에 있어서 운이 70%, 노력이 30%, 사람의 일은 재주나 노력보다 운에 달려 있음을 이르는데 하루하루를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이걸 왠지 부당하게 느껴질 때도 많다. 물론 나의 운은 70%를 다 채우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럴 것이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다. 성당에서 주일학교 엄마들 모임인 자모회 신년회가 있었다. 이런 행사를 몇 번도 모호하였으나 매년 참석율이 저조하였는데 이번에

는 서른 명 가까이 참석을 했다. 참석율만큼이나 좋은 분위기가 무르익고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걸고 추첨이 진행되었는데 대여섯 명이 당첨되어 선물을 받아갔다. 못 받은 사람들이 많이 아쉬워하자 신부님께서 즉흥적으로 본인의 애장품들을 잔뜩 들고 나오셔서 추가 추첨을 진행하셨다. 총 참석자 중 대부분의 인원이 모두 하나씩 선물을 받게 되었고 매우 만족스러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사실 신부님께서 선물을 잔뜩 들고 나오셨을 때 나도 속으로 ‘에이... 나도 뭐 하나쯤은 되겠지’ 하고 살짝 기대를 했었다. 옆 테이블 1조는 다섯 명 전원이 당첨되었고 내 앞, 내 옆 사람들도 당첨되니 나에게도 그 정도의 운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30명 중 못 받은 사람이 다섯 명쯤 되었으려나... 내가 그 중에 하나였다. “이 정도면 너무 운이 없는 거 아닙니까?” 하고 농담을 하며 깔깔 웃었지만 돌아와서 남편과 친구들에게 그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걸 보니 아주 조금은 마음에 걸렸던 모양이다. 당첨자가 서른 명 중 다섯 명일 때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서른 명 중 다섯 명만 탈락이고 그중 한 명이 나라는 것은 은근 신경이 쓰였다.

그리고 보면 나는 추첨 운은 없었다. 심지어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예매도 시간 맞춰 들어가 한두 시간씩 대기를 해봐도 번번이 미끄러졌다. 요령이 없는 것인지 운이 없는 것인지 몇 년째 놓치고 나니 이젠 점점 의지가 약해진다. 어릴 때는 친한 친구들이 나만 빼고 같은 반이 되거나 같은 조가 되는 일도 종종

있었다. 이걸 진짜 내 의지로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보니 왜 나만 운이 나쁠까 하고 한동안 괴로워했던 것도 같다.

노력 없이 공짜로 뭔가를 얻는 일은 극히 드물었지만 내가 준비하고 노력했을 때 결과, 내가 어느 정도 통제가 가능한 인복과 같은 것은 나를 합부로 배반하지 않았다.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까지는 노력이 70%, 운이 30% 정도의 삶이었던 것 같다.

어떤 이들의 말처럼 운에 총량의 법칙이 있는 것이라면 나는 20년 전 신혼여행으로 갔던 태국에서 쓰나미를 피해 하루 전날 살아 돌아왔을 때 이미 나의 운을 다 끌어다 썼을지도 모른다. 그 후에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덤이나 다름 게 없고. 하지만 나는 내 운에 한계를 정하고 싶진 않다. ‘내 팔자가 이렇지 모...’ 하면서 체념하고 포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 동안 힘들었으니 앞으로 꽃길만 걸겠지’ 하며 무척 대고 해맑을 수도 없다. 아직도 알 수 없는 내 운명을 따라 웃고 울다 보면 그 끝에는 부디 나에게 주어진 소임과 하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길 바랄 뿐이다.

* 한국에서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와 26년 동안 생활했던 필자는 2017년 8월부터 다시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 ‘나는야 1.5세 아줌마’는 ‘재미교포1.5세 아줌마’인 필자가 한국 생활을 하면서 전하는 생생하고 유쾌한 한국 이야기이다. <편집자 주>



“정상의 자리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비가 하면 틀림없습니다.”

“마켓 최고의 가격으로 30일 안에 팔아드립니다.”

아이비만의 노하우를 경험 하세요! 실적이 증명합니다. 탑에이전트 아이비와 리스팅을 하시면 아래의 혜택이 함께 덤으로 옵니다

- 01 무료 인스펙션 Free Inspection
- 02 무료 집수리 Free Handyman Work
- 03 무료 집단장 Free Staging
- 04 무료 감정 Free Appraisal
- 05 무료 보험 Free Home Warranty
- 06 무료 창고 제공 Free Storage
- 07 무료 터마이트 검사 Free Termite Inspection
- 08 후불제 페인트 Paint (pay when close escrow)

(* for regular commission listing only some terms and condition will applied)

*** 시니어 스페셜 ***

은퇴후 여유로운 인생의 최고의 선택!!

새로 나온 리버스 모기지 플랜으로 여유 자금/현금 챙기시고 남은 기간 집페이먼트 없이 다운 사이즈 하세요~ 지금 상담 하세요!!

주택/ 상가/ 사업체/ 투자매물 전문 차별화된 전문가의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꿈과 사랑이 싹트는 내 집 마련을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에이전트 아이비를 찾아주세요

※ 새집 분양! 여러지역 새집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상담부터 투어, 입주하실때까지 자세히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 첫 방문시 저와 함께 가셔야 더욱 많은 혜택을 드릴 수 있으며, 매입 거래시 어떠한 수수료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이비 VICE PRESIDENT Member of NAR, CAR, PWR CalDRE#: 02086695

LEAH IVY CHANG REALTOR LeahChangRealty@gmail.com

949.501.8555

Buena Park: 6561 Beach blvd Irvine: 8 Corporate Park #220